

# 경북도 “완벽한 의료시스템으로 ‘APEC 정상회의’ 뒷받침”

지정 협력병원, 23곳으로 확대  
행사장서 현장진료소 3곳 운영  
구급차 50대·응급헬기 5대 투입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원단은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협력병원을 확대하고 중증 응급질환별 전담의료팀과 현장진료소 3곳을 운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단은 먼저 APEC 정상회의 지정 협력병원을 이달 중 기존 13곳에서 23곳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협력병원은 접근성과 시설·의료수준, 환자 중증도와 의료 수요에 따라 3단계로 운영된다.

1차 협력병원은 동국대경주병원을 포함한 경주·경북권 병원 13곳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월경교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준응급 및 비응급 환자를 치료한다.

2차 협력병원은 대구·부산 등 광역 거점병원 7곳, 3차 협력병원은 서울권 종합병원 3곳으로 이들 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대응, 회원국 정상 치료와 응급 이송 체계 등이 연계된다. 여기에 중증 응급질환별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담 의료팀이 참여하게 된다.

정상회의장과 경주엑스포대공원,

라한호텔 등 주요 행사장에는 경증환자 진료·처치, 협력병원 이송 지원 등을 담당하는 현장진료소 3곳을 운영한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내에는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와 협업해 현장 이동형 병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선 국가별 숙소, 회의장, 만찬장 인근에 구급차 50

대와 응급헬기 5대 등을 투입한다.

지원단은 응급의료분야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APEC 의료봉사자도 모집하기로 했다.

또 동국대경주병원에는 85억원을 들여 응급실 병상을 20개에서 28개로 늘리고, 응급실 면적도 2~3배 확장하기로 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스마트미디어센터에는 AI기반 실시간 건강모니터링, 양한방 원격진료 프로그램 등의 'K-의료 스마트헬스케어관'을 운영해 K-의료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은 “완벽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국제행사 성공의 핵심 요소”라며 “남은 기간 세부 과제를 꼼꼼히 준비해 의료 공백 없는 완벽한 의료 시스템으로 APEC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창원시

#### 산불 진화대원에 표창패 전달

창원시는 산청군 산불 발생 당시 위험한 여건에서도 산불 진화대원을 수행한 창원시 직원과 산불 진화대원에게 표창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표창 대상자들은 의창구청·성산구청 산불 담당 공무원 2명과 산불 진화대원 19명으로, 지난달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 투입돼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 업무를 수행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산불 진화 현장에서 강한 돌풍으로 진화대원들이 불길에 고립되고 차량 2대가 전소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투철한 사명감으로 산불 합동 진화에 최선을 다해 지역 사회에 큰 귀감이 됐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의령군

#### 지방 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의령군은 경남도가 진행한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세정 종합평가가 시행된 30년 이래로 수상이 전무했던 의령군은 올해 역대 처음으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3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24년도 지방세정 업무 전반을 평가했다. 평가 지표는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운영, 체납액 정리, 세정 일반 등을 포함한 7개 분야 2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

## 울산시-KBO, 야구 거점도시 육성 추진

### ‘울산-KBO 가을대전 국제야구대회’ 세계적인 명문 교육대전 발전 목표

울산시는 지난 11일 시청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의 야구 거점 도시 육성과 공동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시를 대한민국 야구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울산-한국야구위원회(KBO) 가을대전 국제야구대회’를 일본 피닉스대전과 미국 애리조나 가을대전 같은 세계적인 명문 교육대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2025 울산-한국야구위원회 가을대전 국제야구대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19일간 울산 문수야구장 등에서 국내 5개 팀과 해외 5개 팀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총 68경기가 펼쳐질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한국 야구의 경쟁력 강화, 야구 기반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동 협력하게 된다.

협약에는 ▲울산-한국야구위원회 가을대전 국제야구대회를 세계적 명문대전으로 육성 ▲문수야구장이 최고의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협력 ▲프로야구 활성화 및 야구 주변 확대를 위한 협업 진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이 대한민국 야구 발전을 이끄는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울산-한국야구위원회 가을대전 국제야구대회가 세계적인 명문교육 대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는 “울산은 기후 및 위치, 야구 기반, 행정기관의 지원 측면에서 야구 교육대전의 최적지”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 야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라남도는 11일 무안 초당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계승하기 위한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열렸다. /전남도

## 전남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광복회 전남도지부 주관 개최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라남도는 11일 무안 초당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계승하기 위한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복회 전남도지부(지부장 송인정)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대한이 민족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전남서부보훈지청장, 전남동부보훈지청장, 도내 보훈단체장과 도의원, 광복회원

기념식은 국민의례, 임시헌장 선포문 낭독, 역사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독립군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명창환 부지사는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독립의 정당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항일무장투쟁을 활발하게 펼쳐 광복 때까지 독립운동의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의향전남’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선양과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기장군, ‘철마도시농업공원’ 운영 본격화

부산 최초 도시농업테마 공원

기장군은 부산 최초 도시농업테마 공원이 철마도시농업공원이 11일 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도시농업 관계자, 지역 주민,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이 함께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 기념 식수 식재 등 기념식 행사가 진행됐다.

철마도시농업공원은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에 총 2만 6869㎡ 규모로 조성됐다.

공원에는 도시농업 관련 활동을 지

원하는 도시농업센터를 비롯해 ▲주민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민행복텃밭 ▲어린이를 위한 교육 공간인 어린이학습텃밭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교육·힐링 공간으로 창출됐다.

또 정기적인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한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도시농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철마도시농업공원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 포항시, 홍보대사로 ‘가수 이지훈’ 위촉

가족 중심 이미지, 도시비전과 일치

포항시는 지난 11일 배우 겸 가수 이지훈을 포항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지훈은 데뷔 29년 차 가수로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인물이다. 최근에는 TV조선의 ‘미스터트롯3’과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유튜브 채널 ‘지아라이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끊임없는 도전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하고 있다. 특히, 이지훈은 지난해 포항에서 열린 ‘영일만 스타트업 데이’에서 공연을 하며 포항과 인연을 맺었다. 또한,

3명의 조카가 포항에 위치한 한동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포항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2021년 부인 아이네와 결혼한 이지훈은 딸 루희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으며, 부모님을 포함한 3대 19명의 대가족이 한 건물에서 생활하는 가족 중심의 따뜻한 삶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포항시는 이러한 가족 중심의 삶이 포항시가 지향하는 도시비전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해 이지훈을 오는 2027년 4월까지 2년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 영덕군

#### 산불피해 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영덕군은 최근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요금 감면은 지난 3월 27일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 S)에 피해를 신고하고 피해 사실이 확정된 수용가로, 해당 수용가에는 4월 고지분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이 전액 감면된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한국해양진흥공사

#### 컨테이너선사 대응전략 콘퍼런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 호텔에서 국적 컨테이너선사 CEO를 대상으로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컨테이너선사 대응 전략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난 3월 벌크·탱커선사 대상 콘퍼런스에 이어 개최됐으며 전 세계적 무역 위기 확산과 해상 운임 하락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해운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이도식 기자